

# 보육교사의 질병관련 지식, 직무 스트레스, 자아존중감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장경오\*

<sup>1</sup>영산대학교 간호학과

## Influencing Factors of Knowledge Related to Disease, Job Stress and Self-Esteem on Teacher Efficacy for Childcare Teacher

Koung-Oh Chang<sup>1</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Youngsa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질병관련 지식, 직무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교사효능감의 정도를 알아보고,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방법은 G시의 보육교사 257명을 대상으로 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2014년 5월 23일에서 25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21.0 프로그램으로 평균과 표준편차, t-검정, 일원 분산분석, 피어슨 상관계수,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의 평균점수는 78.80±8.28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대상자의 교사효능감은 자아존중감과 순상관계( $r=.493, p<.001$ ), 직무 스트레스와는 역상관계( $r=-.247, p<.0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질병관련 지식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중회귀분석 결과, 자아존중감, 직무스트레스, 직위에 의해 30.0%가 설명되었다. 따라서 보육시설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explore degree of childcare teacher's teacher efficacy and the factors influencing of knowledge related to disease, self-esteem and job stress on teacher efficacy of those surveyed. A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with a survey of 257 childcare teacher in G city. The data were analyzed with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WIN/21.0 program. The mean score of the was teacher efficacy 78.70±8.28. The teacher efficacy was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esteem ( $r=.493, p<.001$ ) an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job stress( $r=-.247, p<.001$ ). But the teacher efficacy was had a not correlation with knowledge related to disease. ( $r=.046, p=.257$ ) The result of the hierarchical regression indicated that self-esteem, job stress and position explained 30.0% of variance in teacher efficacy. The result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interventional strategies to promote teacher efficacy for childcare teacher in childcare centers to improve teacher efficacy.

**Keywords** : Childcare Teacher, Job stress, Knowledge related to Disease, Self-esteem, Teacher Efficacy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영유아들은 부모들의 직장생활로 보육시설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과거에 비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

다. 그러므로 영유아 발달에 있어 가정 다음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는 환경[1]이 보육시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과 구조적 변화에 따라 부모들은 미처 자기들이 관리하지 못하는 영유아의 건강과 영양 그리고 교육적 측면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포괄적이면서 질적

본 논문은 영산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Koung-Oh Chang(Youngsan Univ.)

Tel: +82-55-380-9440 email: chko1015@ysu.ac.kr

Received August 17, 2015

Revised (1st September 7, 2015, 2nd September 14, 2015)

Accepted December 4, 2015

Published December 31, 2015

인 서비스가 제공되길 원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보육시설 기관의 관리와 책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2].

이러한 보육시설에 종사하며 영유아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는 물리적 환경이나 영유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3],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인적요소로 질 높은 교육서비스 및 공신력을 제공하므로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4]. 영유아들은 보육교사와 더불어 보육시설에서 신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성장에 이르기까지 전인적인 성장을 하게 되고[5], 이런 총체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직업인으로서 교사이기 이전에 영유아에게 신뢰감을 주는 부모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함으로 어떤 물리적, 사회적 환경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6].

영유아기는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고 제한된 공간 속에서 많은 영유아들이 함께 생활하므로 수족구, 독감 등 전염병에 걸릴 확률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 전염성 질환은 원인이 바이러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수의 영유아가 한 공간인 보육시설에서 생활함으로써 한 명의 영유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다른 영유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4]. 특히 영유아기 주요 감염성 질환인 호흡기와 소화기 감염은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에 비해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가 2배 이상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 그러므로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에게 영유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을 위한 안전, 영양, 건강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8], 이들은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비롯하여 전염성 질환과 같은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4]. 따라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교사로서의 기본교육은 물론, 안전과 건강에 대한 통합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1], 이러한 통합교육은 보육교사로서의 자기효능감과 영유아의 질병 관리에 미흡한 보육교사의 자신감을 향상시켜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5]으로 생각된다.

한편, 보육교사는 초임교사 시기를 거치면서 경력을 쌓고 교사로서의 역할과 능력을 발달시키게 되는데, 안정적인 활동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일과 업무에 만족하지 못하므로 자아존중감은 낮아지고 이직률이나 퇴직률은 높아지게 되어 보육서비스의 질은 낮아진다

[9]. 보육교사의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특성 중 하나인 교사효능감은 아동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아동의 기질, 가정환경과 같은 내외적인 특성을 고려했을 때 교사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의 범위에 대한 믿음이 곧 교사의 효능감이라 할 수 있다[10].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현장은 보육교사의 영유아 교육이 아직 완전하게 정형화되지 않고 보육교사의 효능감은 다양한 아이들의 특성과 급변하는 부모들의 요구에 맞는 보육과 교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요인이다[4]. 교사경험이 짧거나 학급의 실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을 배울 수 없는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받았을 때 교사로서의 효능감은 저하될 수 있다[11]. 이러한 교사효능감의 저하는 자아존중감과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어 보육교사가 영유아를 관리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직무 스트레스의 경우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안, 분노, 긴장 등의 부정적인 기분이나 불쾌한 정서적 상태를 경험하게 됨[12]으로 교사의 정신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교사는 다른 직업에 비해 직무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류되고 있으며[13], 보육교사의 경우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탈진을 경험하기 쉽다[14].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탈진이 누적되면 교사의 소진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게 되어 교사-영아 간 상호작용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교사의 이직 및 보육의 질을 저해시킨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15]. 또한 현실적으로 보육교사들은 영유아 보육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과 편견[16]등으로 인해 전문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노동량에 비해 저임금을 받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5,17]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리고 유아교육기관의 건강관리 및 건강관리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실태조사에서는 약 75% 수준의 비교적 높은 실시율은 보였으나 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행정적, 제도적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영유아들의 건강관리자로서 건강교육을 하면서 교육내용과 방법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건강관리에 대한 연수를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나[18], 보육교사들이 영유아의 건강과 질병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도에 관한 연구[4,6,10,16,17], 교사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연구[17,19-21]들이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영유아들의 질병관련 지식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질병관련 지식, 직무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교사 효능감의 정도를 알아보고, 질병관련 지식, 직무 스트레스, 자아존중감과 교사효능감의 관계와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교사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질병관련 지식, 직무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교사효능감의 정도를 알아보고, 질병관련 지식, 직무 스트레스, 자아존중감과 교사효능감의 관계와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보육교사의 일반적인 특성과 질병관련 지식, 직무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교사효능감 정도를 파악한다.
- 2) 보육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질병관련 지식, 직무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3) 보육교사의 질병관련 지식, 직무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교사효능감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 4) 보육교사의 질병관련 지식, 직무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질병관련 지식, 직무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교사효능감 정도를 알아보고,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4년 5월 23일에서 25일 까지 G시의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의 원장 및 담당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허락받은 민간보육시설 36곳과 가정보육시설 12곳의 257명의 보육교사를 대상

으로 하였다. 각 기관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수집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될 것과 설문지를 하던 중이라도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에 동의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설문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표본 수는 G\*Power 3.1.2 프로그램의 회귀분석(Linear multiple regression: Fixed model)의 표본크기 산출을 근거로 검정력 .09, 유의수준 .05, 예측변수 6개로 산출한 결과 표본 수는 130명이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280명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이중 응답이 불충분한 23부를 제외하였다. 효과크기는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에 대한 Byun과 Chang[5]의 연구에서와 같이 중간 정도 크기로 설정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질병관련 지식

본 연구에서 질병관련 지식은 영유아 질병관리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지시기수준 및 관리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 You[22]의 측정도구를 Kim[2]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한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40문항으로 질병 14문항, 질병관리 17문항, 영양 건강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 “아니오”로 답을 선택하게 하여 정답일 경우는 1점, 오답일 경우 0점으로 하였고 가능한 점수범위는 0~4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보육교사의 질병관련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질병관련 지식 문항에 대한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보육전문가 3인과 소아과 전문의 1인이 함께 문항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보육교사 10인을 대상으로 한 예비실험도를 분석한 결과, Kim[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4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716이었다.

### 2.3.2 직무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는 D'Arienzo, Moracco, Krajewski[23]의 교사 직무 스트레스 요인 질문지(Mo-dified Teacher Occupational Stress Factor Questionnaire)를 Yoon과 Choi[24]가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직무 스트레스 도구는 7개 영역으로 원아들과 활동요인 5문항, 업무관련 요인 7문항, 행정적 지원요인 8문항, 동료와의 관계요인 5문항, 학부모와의 관계 요인 4문항, 경

제적 안정 요인 3문항, 개인 관련 요인 2문항으로 총 34 문항이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까지 5점 척도이다. 총점의 범위는 34~17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 것을 의미한다. Yoon과 Choi[24]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alpha = .97$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907$ 이었다.

### 2.3.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25]가 개발하고, Jeon[19]이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자아가치와 자아승인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기보고식 척도로 긍정 5문항, 부정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1점 ‘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부정 문항은 역점수 처리하였다. 가능한 총점범위는 10~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Jeon[1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1$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80$ 이었다.

### 2.3.4 교사효능감

교사 효능감은 Enochs와 Riggs[26]에 의해 개발된 교사의 과학 교수효능감 검사도구(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 STEBI)를 일반적인 어린이 집 상황에 맞게 수정한 Shin과 Rhee[15]의 교사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2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척도로 부정문 형식으로 서술된 개인효능감 영역에 속한 6개 문항은 역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가능한 총점범위는 22~1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 자신이 교사역할에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며 그로 인하여 영유아의 성취 및 결과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신념이 강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Shin과 Rhee[15]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8$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06$ 이었다.

##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질병관련 지식, 직무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교사효능감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질병관련 지식, 직무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교사효능감은 t-test,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질병관련 지식, 직무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교사효능감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질병관련 지식, 직무 스트레스, 자아존중감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5)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분석은 유의수준 5%하에서 검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257명이 여자 보육교사였으며, 평균 연령은 36.82세로 30-39세가 144명(56.0%)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2-3년제 대학졸업이 155명(60.3%)으로 가장 많았다. 경력은 1년-3년 미만 81명(31.5%), 1년 미만 75명(29.2%), 5년 이상 65명(26.3%) 그리고 3년-5년 미만 36명(14.0%)의 순으로 나타났고, 기관유형은 가정보육시설이 211명(82.1%)으로 가장 많았다. 직위는 일반 보육교사가 184명(71.68%)로 가장 많았고, 맡은 학급 연령은 3세 미만이 154명(59.9%)으로 많았으며, 자녀양육경험은 ‘있다’가 221명(86.0%)으로 많았다 Table 1.

### 3.2 연구대상자의 질병관련 지식, 직무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교사효능감 정도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질병관련 지식, 직무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교사효능감 평균 점수는 질병관련 지식은  $34.57 \pm 3.31$ 점, 직무 스트레스는  $76.47 \pm 17.10$ 점, 자아존중감은  $40.97 \pm 4.94$ 점 그리고 교사 효능감의 평균 점수는  $78.70 \pm 8.28$ 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57)			
Characteristics	Categories	6	%
Age	20-29	25	9.7
	30-39	144	56.0
	40-49	76	29.6
	50 ≤	12	4.7
	Average age	36.82±6.47	
Education	High school	42	16.3
	College	155	60.3
	University	60	23.4
Work experience (year)	1>	75	29.2
	1-3	81	31.5
	3-5	36	14.0
	5 ≤	65	26.3
	Institution type	Family day care	211
Private day care		46	17.9
Position	Director	46	17.9
	Head teacher	18	7.0
	Child care teacher	184	71.6
	Etc.	9	3.5
Class age (year)	<3	154	59.9
	<3-4	41	16.0
	<4-5	45	17.5
	5 ≤	17	6.6
Child parenting experience	Yes	221	86.0
	No	36	14.0

**Table 2.** Subjects's knowledge related to disease, job stress, self-esteem and teacher efficacy

(N=257)		
Variables	Range	M±SD
Knowledge related to Disease	0~40	34.57± 3.31
Job Stress	34~170	76.47±17.10
Self-esteem	10~50	40.97± 4.94
Teacher Efficacy	22~110	78.70± 8.28

### 3.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질병 관련 지식, 직무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교사효능감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질병관련 지식은 나이(F=3.161, p=.025), 직위(F=3.661, p=.013), 자녀양육 경험(t=6.808, p=.01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직위에서 주임교사가 원장과 원감, 보육교사, 기타 직위보다 질병관련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는 나이(F=3.160, p=.02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검정 결과, 나이에서 50세 이상이 20~29세, 30~39세 그리고 40~49세보다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교육(F=5.593, p=.004), 경력(F=3.798, p=.011), 직위(F=2.740, p=.044) 그리고 자녀양육 경험(t=9.601, p=.002)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정 결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육경력 3-5년 사이의 보육경력을 가진 보육교사가 5년 이상보다 1-3년,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보육교사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사효능감은 나이(F=3.170, p=.025), 경력(F=4.260, p=.006), 직위(F=5.920, p<.001), 자녀양육 경험(t=6.285, p=.013)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나이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육경력에서 보육경력이 높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았다. 직위에서 원장과 원감의 교사효능감이 보육교사 보다 높았고, 기타 직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 3.4 연구대상자의 질병관련 지식, 직무 스트레스, 자아존중감과 교사효능감과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질병관련 지식, 직무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교사효능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교사효능감은 직무스트레스와 역상관관계(r=-.247, p<.001), 교사효능감과 자아존중감과는 순상관관계(r=.493,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효능감과 질병관련 지식에서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able 4.** Correlation among the variables

Variables	Knowledge related to Disease	Job Stress	Self-esteem	Teacher Efficacy
	r(p)	r(p)	r(p)	r(p)
Knowledge related to Disease	1			
Job Stress	-.072(.257)	1		
Self esteem	.065(.257)	-.228(<.001)	1	
Teacher Efficacy	.046(.257)	-.247(<.001)	.493(<.001)	1

### 3.5 연구대상자의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 분석

연구대상자의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수로 질병관련 지식, 직무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일반적인 특성 중 교사효능감에 유의한

**Table 3.** Difference of knowledge related to disease, job stress, self-esteem and teacher efficacy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57)

Characteristics	Categories	Knowledge related to Disease		Job Stress		Self-esteem		Teacher Efficacy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Age	20-29 <sup>a</sup>	33.48±3.06		77.64±17.79		39.20±5.61		75.08±6.47	
	30-39 <sup>b</sup>	34.72±2.94	3.161 (.025)	78.53±16.66	3.160 (.025)	40.78±4.56	2.259 (.082)	78.53±7.50	3.170 (.025)
	40-49 <sup>c</sup>	34.97±3.66	b<c	71.53±17.55	b<d	41.59±5.18		79.47±9.94	c<d
	50≤ <sup>d</sup>	32.42±4.64		80.58±12.75		43.00±5.56		83.33±6.41	
Education	High school <sup>a</sup>	34.55±3.78		74.88±18.00		40.00±4.55	5.593 (.004)	76.71±8.34	1.890 (.153)
	Collage <sup>b</sup>	34.54±3.03	0.240 (.976)	76.38±17.29	0.363 (.696)	40.53±5.01	b<c	78.77±8.14	
	University <sup>c</sup>	34.65±3.67		77.80±16.11		42.77±4.62		79.93±8.50	
Work Experience (year)	1> <sup>a</sup>	34.36±3.83		74.35±16.83		40.07±4.70		79.64±6.99	
	1-3 <sup>b</sup>	34.80±2.91	0.348 (.790)	78.47±17.56	1.100 (.350)	40.48±4.97	3.798 (.011)	77.91±8.07	4.260 (.006)
	3-5 <sup>c</sup>	34.28±3.24		74.11±17.78		43.19±4.54	c>d<b	80.86±8.68	c<d
	5≤ <sup>d</sup>	34.68±3.20		77.72±16.13		41.37±5.07		80.88±9.06	
Institution type	Family day care	34.67±3.23	1.083 (.299)	76.14±16.72	1.083 (.299)	40.82±5.01	1.018 (.314)	78.88±8.04	0.510 (.476)
	Privative day care	34.11±3.64		77.96±18.90		41.63±4.59		77.91±9.39	
Position	Director <sup>a</sup>	34.57±3.20		75.26±13.92		41.96±5.22		82.39±8.81	
	Head teacher <sup>b</sup>	35.67±2.57	3.661 (.013)	69.72±12.76	1.259 (.289)	40.67±4.92	2.740 (.044)	81.61±9.19	5.920 (.001)
	Child care teacher <sup>c</sup>	34.62±3.12	b>c,a	77.50±17.91		40.95±4.79	a>c,b	77.73±7.83	a>b
	Etc <sup>d</sup>	31.33±6.38		75.00±21.17		36.89±5.06		74.00±5.79	
Class age (year)	3<	34.88±2.96		76.03±15.86		41.10±4.71		79.32±7.97	
	<3-4	34.05±4.30	1.201 (.310)	73.29±19.64	1.841 (.140)	41.29±5.79	0.363 (.780)	79.20±9.70	1.748 (.158)
	<4-5	34.02±3.19		81.44±17.63		40.33±4.07		76.18±6.78	
	5≤	34.47±3.81		74.88±18.06		40.65±6.86		78.59±10.28	
Child parenting experience	Yes	34.78±3.22	6.808 (.010)	76.24±16.82	0.277 (.599)	41.34±4.76	9.601 (.002)	79.22±8.34	6.285 (.013)
	No	33.50±3.54		77.47±17.10		38.64±5.46		75.53±7.22	

a,b,c,d=Post-Hoc.

**Table 5.** Factors inflencing on teacher efficacy

	B	SE	β	t	p	R2 Variation	Accumulation R2
(Constant)	51.591	4.658	-	11.077	<.001	-	-
Self-esteem	.753	.091	.449	8.260	<.001	.243	.243
Position-Director	3.803	1.151	.176	3.303	.001	.026	.269
Job Stress	-.061	.026	-.126	-2.319	.021	.019	.288
Position-Head teacher	3.655	1.733	.113	2.109	.036	.012	.300

Durbin-Watson=1.876, F=27.001, p=.000, R2=.300, Adj-R2=.289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령(년), 근무경력(1년 미만 기준), 직위(보육교사 기준), 자녀양육 경험(있다 기준)을 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분석 전 오차항이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케이스별 진단을 실시한 결과 표준화 잔차가 ±3 이내의 값을 나타나 오차항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할 수 있었으며, 오차항들 간에 자기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더빈-왓슨 통계량을 구한 결과 1.876으로 2근방의 값으로 나타나 오차항들 간에는 자기상관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공차한계와 VIF를 구한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10 이상이였으며, VIF는 10 미만이어서 독립변수들 간에는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결과 교사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β=.452) 이였으며, 다음으로 직위의 원장 및 원감(β=.176), 직무스트레스(β=-.126), 직위의 주임교사(β=.113)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직위가 보육교사가 아니고 원장 및 원감일수록, 주임 교사일수록 교사효능감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 직무스트레스, 직위에 의해 30.0%가 설명되었다( $F=27.001$ ,  $p=.000$ ,  $R^2=.300$ ) Table 5.

#### 4. 논의

본 연구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질병관련 지식, 직무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교사효능감의 정도를 알아보고,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질병관련 지식의 평균점수는 점수범위 0~40점 만점에 34.57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 질병에 대한 어머니와 보육교사의 지식 정도 및 질병관리 실태를 연구한 Kim[2]의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지식 점수가 점수범위 0~40점 만점에서 환산하였을 때 33.36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보육시설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보육교사의 지식, 자신감, 실천에 대해 연구한 Oh, Sim, Choi[27]의 연구에서도 건강관련 지식 점수는 점수범위 0~35점 만점에 27.42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 맥을 같이한다 할 수 있다. 하지만 Kim[28]의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70% 이상의 보육교사가 영유아 건강관리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Kim[28]의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37.1%가 수족구병, 수두, 유행성 결막염 증 전염성 질환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전염성 질환을 가진 영유아에 대한 조치로 보육시설에 오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하여 전염성 질환과 응급처치에 있어 미흡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교육 요구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영유아 질병관련 지식 점수가 다소 높았다 하여도 영유아의 질병관리와 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하므로 보육시설에서 영유아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응급처치, 사고예방을 위한 건강교육과 주요 질환의 증상 관리와 전염성 질환의 관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 이론과 실습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또한 전국 보육시설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보육교사의 책임 하에 체계적인 영유아 건강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의 평균점수는 점수범위가 34~170점 만점에 76.47점으로 보통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won[17]의 보육교사의 생활만족에 대한 조직풍토와 직무 스트레스에 관해 연구에서 점수 범위가 27~162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평균 점수가 78.84점으로 낮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할 수 있으며, Kwon[30]의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점수범위 30~180점 만점에서 점수를 환산하였을 때 평균 점수 84.0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Song[29]의 보육교사의 인적배경 및 보육시설의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는 점수범위 6~30점 만점에서 평균 점수가 13.32점으로 보통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Kim, Lee[31]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보통 이상으로 나온 것과 상이한 차이가 있어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직무 스트레스란 교사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긴장, 좌절, 불안, 분노와 의기소침과 같은 불쾌한 정서를 말한다[12]. 이렇듯 보육교사 한 명이 많은 돌봄이 필요한 많은 수의 영유아를 관리함에 있어 긴 근무시간과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중한 역할부담은 과도한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기력의 고갈된 상태가 되고 직무수행 능력이 감소하여 비인격화된 행동을 보이며, 개인적 성취결여 현상을 보이는 소진상태[32]에 빠지게 한다. 또한 이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의 증가와 긴장감은 교사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악화시키며, 삶의 질을 저하시켜 보육교사들의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보육교사들의 긴 근무시간과 과도한 행정적 업무처리를 줄여 줄 수 있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보육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자아존중감의 평균 점수는 점수범위 10~50점 만점에 40.97점으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won[17]의 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조직풍토, 자아존중감의 영향에 대해 연구에서 점수범위 6~60점 만점에 45.7 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할 수 있으며, Lee[20], Kwon[30]의 연구에서 보육교사들의 자아존중감은 다소

높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하겠다.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문제 상황 발생 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뿐 아니라 이를 해결하려는 동기가 높다고 하였다[33].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아존중감이 높은 보육교사는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 직면 시 효율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하며 비교적 만족스러운 문제해결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 이 같은 문제해결 경험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대해 만족하도록 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자질에는 지식, 능력, 기술 등과 같은 외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인간적, 도덕적, 감성적, 지각적 능력과 같은 내적인 조건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34] 생각된다. 훌륭한 교사의 자질 중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심리적 특성 중의 하나인 자아존중감이다. 그러므로 보육교사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와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가치 있게 여기도록 노력하고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영유아를 교육함에 있어 교육환경을 탐색하고 창의적, 혁신적 활동[24]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 평균 점수는 점수범위 22~110점 만점에 78.70점으로 보통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교사의 교사 효능감, 교사신념이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Lee[65]의 연구에서 점수범위 15점~75점 만점에 52.5점으로 보통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할 수 있으며, 보육교사의 SOC 책략과 정서지능, 교사효능감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Eom[35]의 연구에서도 교사효능감이 72.2점으로 보통보다 다소 높은 것을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할 수 있다. 높은 교사 효능감을 가진 교사는 열악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낮은 교사효능감을 보이는 교사보다 교사직을 오래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37]. 본 연구에서 교사 효능감이 보통보다 다소 높은 것은 교사들은 영유아들과 생활하는 일을 의미 있게 생각하며, 자신이 영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교사 효능감은 교사 자신의 행동과 영유아들과의 상호작용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교사는 영유아와 신뢰로운 관계형성을 통해 향후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교사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질병관련 지식, 직무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교사효능감은 질병관련 지식의 경우 연령, 직위, 자녀양육경험에서, 직무스트레스는 연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질병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지식수준과 질병관리를 연구한 You[22]연구에서 유아 질병에 대한 지식수준이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하겠다. 하지만 Kim[4]의 연구와 Oh, Sim, Choi[27]의 연구에서 교사의 연령, 지식정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의 이러한 연구 결과는 최근 영유아 질병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되고 다양한 경력의 보육교사들이 교사교육을 통해 질병에 대한 지식을 많이 습득하여 현직 보육교사의 의무사항인 보수교육 과정에서도 건강과 관련된 과목을 수강하기 때문으로 예상된다[4]. Song[29]의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가 연령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학력과 경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하겠다. 하지만 Kim[4]의 연구에서 경력, 학력, 직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Kwon[30]의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직무 스트레스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자아존중감은 교육, 보육경력, 직위, 자녀양육 경험에서, 교사효능감은 나이, 보육경력, 직위, 자녀양육 경험에서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육경력 3-5년 사이의 경력을 가진 보육교사가 3년 미만과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보육교사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의 경우 보육교사의 직무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을 연구한 Cho[38]의 연구에서 보육경력, 결혼여부, 교사의 연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육경력과 나이가 많을수록 기혼의 보육교사가 미혼의 보육교사보다 자아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교사효능감은 연령, 보육경력, 직위, 자녀양육 경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보육경력이 많고 직위가 높을수록 자녀양육경험이 있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Yang[38]의 연구에서 장애 전담 보육시설 보육 교사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교사효능감은 경력에서, Choi[34]의 연구에서는 사회 인구학적 변인 가운데 연령에 따른 차이만 유의미하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그리고 교사 경력이 길수록 교사효능감이 높았다는 선행 연구결과[41]와 맥락을 같이한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들의 교사효능감은 직무스트레스와 역상관관계( $r=-.247, p<.001$ ), 교사효능감과 자아존중감과는 순상관관계( $r=.493, p<.0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20]의 연구에서 교사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가 유의한 부적 상관( $r=-.33, p<.01$ )가 있는 것을 나타냈으며, Kim, Chung[4]의 연구에서도 유의한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하겠다. 그리고 Lee[36]의 연구에서 교사 효능감은 교사신념과는 정적 상관관계, 직무 스트레스가 유의한 부적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하겠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일수록 직무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는 Cho[3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Kim, Jeon, Park[41]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교사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할 수 있다. 교사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보육교사는 직무가 다소 어렵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직무를 수행하고 그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교사는 신체적 접촉, 대화의 형식, 감정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제공할 수 있고 교사의 자아존중감은 유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각된다. 그러므로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교사 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교사는 이에 대한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등의 영유아의 활동에서 일반적인 보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30]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사 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보육의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질병관련 지식, 직무스트레스, 자아존중감이 교사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 한 결과, 설명력은 30.0%로 자아존중감이 높고 직무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직위에서는 보육교

사가 아니고 원장 및 원감일수록, 주임교사일수록 교사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교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연구한 Kim, Chung[4]의 연구에서 회귀 분석 한 결과, 예측변인인 직무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력이 단독으로는 18.8%, 매개변인인 교사효능감을 투입하였을 때는 27.2%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 및 교사신념이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Lee[36]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 교사의 효능감이 11.0%의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보육교사의 직무 만족도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Cho[38]의 연구에도 보육교사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설명력이 최대 15.0%로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렇듯 본 연구 결과와의 설명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선행연구 결과도 있었지만 질병관련 지식을 제외한 직무 스트레스, 자아존중감이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와 비교한 선행연구들과의 설명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추후 반복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고 직무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보육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낮추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부분과 보육교사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보육시설 보육교사들이 긍정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질병관련 지식, 직무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교사효능감의 정도를 알아보고,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그 결과, 연구 대상자들에 있어서 질병관련 지식은 다소 높고, 직무 스트레스는 보통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교사효능감은 보통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질병관련 지식, 직무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교사효능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교사 효능감은 직무 스트레스와 역상관관계, 교사효능감과 자아존중감과는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질병관련 지식과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사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 $\beta=.452$ ) 이었으며, 다음으로 직위의 원장 및 원감( $\beta=.176$ ), 직무스트레스( $\beta=-.126$ ), 직위의 주임교사( $\beta=.113$ )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직위가 보육교사가 아니고 원장 및 원감일수록, 주임교사일수록 교사효능감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 직무스트레스, 직위에 의해 30.0%가 설명되었다.

이상의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질병관련 지식, 직무스트레스, 자아존중감이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질병관련 지식, 직무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교사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가 및 사회적 지지체계를 확립하고, 보육교사들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과 더불어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추후 관련 변인을 좀 더 구체적이면서 포괄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한 지역에 국한된 연구이므로 일반화하기 다소 어려움이 있다 생각된다. 따라서 연구 대상자를 확대하여 보육교사의 사회적, 심리적 부분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질병을 비롯한 안전과 관련된 변수를 추가하여 추후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References

- [1] O. H. Ahn, H. G. Cha, S. H. Park. "Survey on degree of the recognition of multicultural,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and their correlation in nursery teacher",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4(3), pp. 1411- 1425, 2012.
- [2] S. H. Kim, "A Study on the knowledge and the actual condition of management for early childhood diseases of mothers and child care teac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Ulsan, 2011.
- [3] J. Y. Park, S. K. Han, E. J. Seo, "A study on Strategies for enhancement of Effective Children-Teacher Interaction and Teacher's Teaching Capacity through Recognition Comparison between Nursery Teachers and Early Childhood Teach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3), pp1785-1794,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3.1785>
- [4] Y. S. Kim, M. S. Chung,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job stres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mediating role of teaching efficacy belief",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3), pp1424-1435,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3.1424>
- [5] E. K. Byun, K. O. Chang. "Influencing factors of self-esteem and job stress on teacher efficacy for childcare teache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3), pp1424-1435,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6.3982>
- [6] S. Y. Cho, H. A. Koo. "A Job Stress and Self-Efficacy of Child Care Teache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4), pp55-70, 2005.
- [7] N. Lu, M. E. Samuels, L. Shi, S. L. Baker, S. H. Glover, J. M. Sanders. "Child day care risks off common infectious diseases revisited", *Child Care Health*, 30(4),pp.361-368, 2004.  
DOI: <http://dx.doi.org/10.1111/j.1365-2214.2004.00411.x>
- [8] I. S. Kong, M. H. Han, Y. J. Kim. "Introduction of childcare", *Education History of Science*, Seoul, 2005.
- [9] N. J. Lim, A. N. Kim,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 job stress on the turnover intention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8), pp4972-4980,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8.4972>
- [10] H. M. Lee. "Effects of child care teachers' sence of efficacy and belief on job stress",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56(1), pp187-208, 2009.
- [11] S. H. Bae. "The effects of the happiness of childcare teacher on teacher's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Bus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2, pp25-44, 1994.
- [12] C. Kyriacou. "Teacher stress: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Educational Review*, 53(1), pp. 27-35, 2001.  
DOI: <http://dx.doi.org/10.1080/00131910120033628>
- [13] V. Kovess-Masféty, C. Rios-Seidel, C. Sevilla-Dedieu. "Teachers' mental health and teaching level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3(7), 1177-1192, 2007.  
DOI: <http://dx.doi.org/10.1016/j.tate.2006.07.015>
- [14] J. K. Lee, S. B. Moon, "The effect of child care teacher's perceptions of reward perception on child care teacher's job stres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8(4), 165-184, 2011.
- [15] H. Y. Shin, E. H. Rhee. "Effects of teachers' job stress and belief of efficacy on the quality of teachers' interaction behaviors in child car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5), pp105-121, 2005
- [16] B. D. M. Kim, H. Y. Shin. "An exploratory study on job stress of day care teacher",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0(3), pp253-276, 2000.
- [17] Y. H. Kwon,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Climate,

- Self-esteem, and Job Stress on Childcare Teacher's Life Satisfaction",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74, pp. 131-151, 2013.
- [18] E. J. Lee, "Teachers' Awareness and Their role performance on preschoolers' health manag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hungnam, 2011.
- [19] B. J. Jeon.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University Journal, 11, pp107-124, 1974.
- [20] S. Y. Lee, "Influencing factors of job stress and self-esteem on teacher efficacy for childcare teach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2012.
- [21] W. J. Lim, "The effect on the teacher's efficacy by background and psychological variable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2005.
- [22] Y. S. You. "A study on the basic knowledge and the actual condition of management of early childhood diseases of parents and kindergarten teac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2001.
- [23] R. V. D'Arienzo, C. Moracco, R. J. Krajewski. "Stress in teaching: a comparison of perceived occupational stress factors between special education and regular classroom teachers", Washington, DC :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1.
- [24] H. Y. Yoon, I. S. Choi. "Relationship of organizational climate and professionalism awareness to job stress in kindergarten teacher", Journal of Human Life Sciences, 12, pp67-79, 2009.
- [25]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26] L. G. Enochs, I. M. Riggs. "Further development of an elementary 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 A pre-service elementary scale", School Science and Mathematics, 90(8), pp694-706, 1990.  
DOI: <http://dx.doi.org/10.1111/j.1949-8594.1990.tb12048.x>
- [27] K. S. Oh, M. K. Sim, E. K. Choi, "Knowledge, self-confidence and practice of teachers concerning health and safety of children in child-daycare Centers", Journal Korean Academic Child Health Nursing 14(2), pp155-162, 2008.
- [28] J. S. Kim, "A survey on teacher's health needs in child care cent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2003.
- [29] M. S. Song, "A study on child care teachers' job stress according to teachers' background variables and characteristics of child care center",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36(1), pp143-159, 2005.
- [30] Y. H. Kwon,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climate and self-esteem on teachers' job stress in corporate-sponsored child care center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0(15), pp. 437-455, 2010.
- [31] S. Y. Kim, J. Y. Lee, "The relationships between kindergarten teacher's personality types and job stress in teaching",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1(3), pp305-330, 2004.
- [32] J. Weisberg, A. Sagie, Teacher's physical, mental, and emotional burnout: Impact on intention to quit. Journal of Psychology, 133, pp333-339, 1999.  
DOI: <http://dx.doi.org/10.1080/00223989909599746>
- [33] D. M. Zuckerman, "Stress, self-esteem, and mental health: How does gender make a difference" Sex Roles 20: pp429-444, 1989.  
DOI: <http://dx.doi.org/10.1007/BF00288001>
- [34] Harter, S., Developmental perspectives in self-esteem. In. P. H. Musse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 pp.275-385, New York : John wiley & Sons, 1983.
- [35] S. J. Eom, "Relationship among selection, optimization, and compensation(SOC) strategies, emotional intelligence, and teaching efficacy of child care teachers",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62, pp97-123, 2010.
- [36] H. M. Lee, "Effects of child care teachers' sense of efficacy and belief on job stress",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56, pp187-208, 2009.
- [37] A. E. Woolfolk, W. K. Hoy, "Prospective teachers' sense of efficacy and beliefs about contr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 pp81-91, 1990.  
DOI: <http://dx.doi.org/10.1037/0022-0663.82.1.81>
- [38] S. Y. Cho, "Child care teacher's job, satisfaction and self-esteem", The Journal of Child Students, 26(1), pp359-373, 2005.
- [39] Y. S. Yang, "Efficacy and Burnout of Child Care Teachers for the Disabled Children",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47, pp175-195, 2006.
- [40] I. S. Choi, "The Effects of Teachers' DAP Beliefs and Teacher Efficacy on Conflict Resolution Attitudes", Korean Association of Child Care & Education, 8(2), pp81-99, 2012.
- [41] Y. S. Kim, Y. J. Jeon, J. Y. Park,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Efficacy and Difficulties on Job Performance Depended on Self-Esteem of Child Care Teach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63), pp1100-1108,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3.1100>

**장 경 오(Koung-Oh Chang) [정회원]**



- 2003년 8월 : 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8년 2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1991년 6월 ~ 1995년 10월 : 경상대학교병원 간호사 근무
- 1996년 10월 ~ 2007년 2월 : 양산시, 진주시보건소 근무
- 2014년 1월 : 진주보건대학교 간호과 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영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지역사회간호, 건강증진